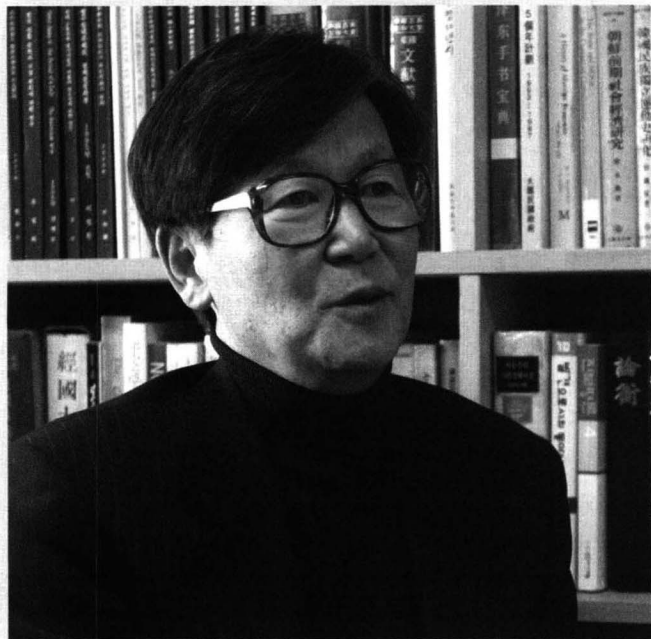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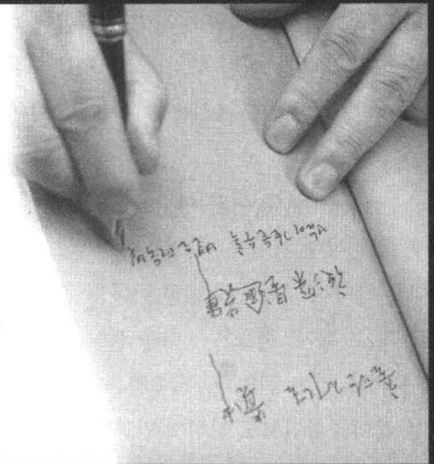


동양의 과거로 미래를 쓰는 이 시대 선비의 외출

2005 '올해의 책' _
《강의 - 나의 동양고전독법》 쓴 신영복 교수



강의 원하는 수많은 독자와 함께 한 2005년

“먼 길을 오셨지요.”

신영복 교수(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대학원장)는 “서울에서 성공회대학교까지 오는 길은 꽤 멀다”며 멧쩍은듯 인사를 건넸다. 《논어》‘學而 편의 구절, ‘有朋自遠方來不亦樂乎’(먼 곳에서 벗이 찾아오니 어찌 즐겁지 않으랴)가 떠올랐다. 신 교수는 《강의 - 나의 동양고전독법》에서 ‘여기서 친우(親友)는 수평적 인간관계를 의미한다’고 적었다. 이 말은 자신이 머무는 학교를 찾아오는 이에게 환영의 인사를 건넬 때 그가 자주 인용하는 말이었다.

신 교수는 2005년을 마감하는 이 즈음, 어느 때보다도 사람을 많이 만났던 열두 달로 지난 한 해를 기억했다. 《강의》를

들고 그 뜻을 나누고자 하는 사람들과 부지런히 눈을 맞췄다. 그는 “책 쓰는 입장에선 한 권을 내면 다음 책을 얼른 준비하는 게 도리”라고 했다. 하지만 친우 반기듯 버전별로 그를 맞는 각 지역의 독자들 덕에 ‘다음 책’을 구상할 여유가 없을만큼 바빴던 한 해다. 물론, ‘더불어’ 사는 세상을 제창하는 그의 뜻에 공감했던 독자들 입장에선 먼 곳에 머무는 귀한 친우가 찾아온 것만큼 그의 책이 더없이 반가웠을 테다.

“인터넷 신문에 일부 강의를 녹취해서 소개가 됐습니다. 여러 후배들로부터 책으로 출판하자는 요구를 받았죠. 일단 책으로 나오고 나니 민망한 기분도 들지만, 이젠 마음이 편안하네요. 출판계가 불황이다. 인문학은 더 어렵다고들 해서 부담이 있었지만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읽어주셔서 감사할 따름이죠.”

《강의》는 《시경》, 《논어》, 《맹자》, 《노자》, 《장자》, 《순자》와 같은 동양고전의 핵심을 추출해 놓은 텍스트다. 그러나 훈고학적 독해와는 사뭇 다른 접근이었다. 신 교수는 그 문장들을 놓고 당대 사회의 당면과제를 비판적 시각으로 이해하는 길을 터놓았고, 역설적으로 옛 것에서 미래의 가능성과 희망을 찾았다. 언뜻 나이 든 계층의 손에서나 머물 것 같지만, 젊은이들 사이에서 반향이 컸던 이례적인 인문서였다.

동양정신의 요체 '관계론'적 가치에 방점

사실 올곧은 미래를 제시하는 과거, ‘동양고전’은 그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곁에 두었던 지침서였다. 4·19와 5·16이라는 격동기를 보내던 청년기,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근대화 계획이 물밑 듯 들어왔을 때, 그때야말로 “가난했고 절망적이었던 시간”이었다. 결과적으로 우리 것에 대한 단 한줌의 자부심도 허락하지 않았던 사회 분위기 속에서 학생운동을 했고, 이때 감옥에

들어간 그의 마음을 보듬어주던 텍스트가 바로 동양고전이다.

“독법은 근본적인 고민을 하도록 하는 공간이었죠. 우리에게 소중
한 문화적 자식이 왜 없는지라는 반성의 일화로 고전을 탐독했죠. 한 번에
책을 세 권밖에 못 들어오니까 용이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 점에서 하자로
돼 있어 읽는 데 시간이 걸리는 고전 텍스트는 오래 두고 읽기 좋은 책이기
도 했죠.”

고전강독을 설명하는 신 교수는 동양정신의 요체인 관계론에 방점을 찍었다. 이른바 동양의 정수라 불리는 관계의 철학은 패권주의의 기본적인 패러다임이라 불리는 서양의 존재론과는 반대되는 개념이면서, 세계화, 신자유주의 맥락이 낳은 여러 모순들을 해결할 실천적 대안으로 의미가 깊다는 것이다. 동양정신에는 개인적, 배타적이라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내 안에 타인이 들어오고, 타인 속에 내가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관계망이 형성되고, 인간은 자연의 일부로서 ‘더불어 숲’을 이룬다. 신 교수는 “이런 관계론적인 가치들이 풍부하게 존재할 때, 예컨대 미국과 유럽이 주창하는 패권주의적 질주가 내포한 여러 상황들을 반성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미셀 푸코가 《감시와 처벌》을 쓰면서 이 책이 왕고한 지배구조를 깨뜨리는 연장통이면 좋겠다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전투적 실천성은 그것보다 떨어질지 모르지만 우리 사회의 다면 과제들과 맥락이 닿는 글을 쓰고 싶었지요. 오래된 텍스트지만 치열한 경쟁구도, 목표만 바라보고 매진하는 데 혈안이 돼 있는 우리에게 지성의 계기가 될 ‘미래의 길’입니다.”

감옥은 깨달음의 공간...보수적 서양식 아닌 '우리식 글쓰기' 시도

감옥에서부터 걸어 올린 사유의 줄기를 앞에 두고 그곳에서의 기억을 더듬을 때 “나도 의식하지 못하는 상처와 흉터가 분명히 있다”고 그는 말한다. 그러나 그보단 ‘깨달음의 공간’ 이자 ‘대학’에 다름없는 이미지가 더 짙다. 차단된 곳이니만큼 자신에 대해 충분히 생각할 기회가 있었고, 밖에서는 결코 만나기 힘든 이들을 만나며 우리 사회의 실상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1학년밖에 안 다닌 고리끼가 《나의 대학》이란 글을 쓴 적이 있어요. 불가니 연안의 끼지나라는 도시의 빈민촌에서 생활했던 경험을 작목화한 것이지요. 그 논리를 빌려 보더라도 감옥에서의 생활은 아주 훌륭한 대학생활이었습니다. 물론 이 책에 그 시절의 사색과 성장들이 다 기록돼 있죠.”

‘형식도 내용을 규제한다’고 말하는 그는 관계론에 뿌리를 둔 이번 강독에서 의미에 맞는 글쓰기 형식을 고민하다 ‘강의’ 그대로의 구어체를 옮겨 적었다. 그래서인가. 태산준령(泰山峻嶺) 같은 고문체가 읽는 이의 입에 술술 감긴다. 신 교수는 우리문화에 맞는 글쓰기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했다 한다. 사실 서양식으로 서론, 본론, 결론을 구성하고 주석을 붙이는 기존의 글쓰기 형식은 서구 학문의 보수적 정신의 산물에 다름 아니다. 그런 점에서 주석을 붙인다는 자체는 서구 학문의 종속적 입장에 자신을 가둔다는 의미이고, 존재론에 입각한 서양 문명의 정신을

그대로 담고 있는 형식이라는 게 신 교수의 입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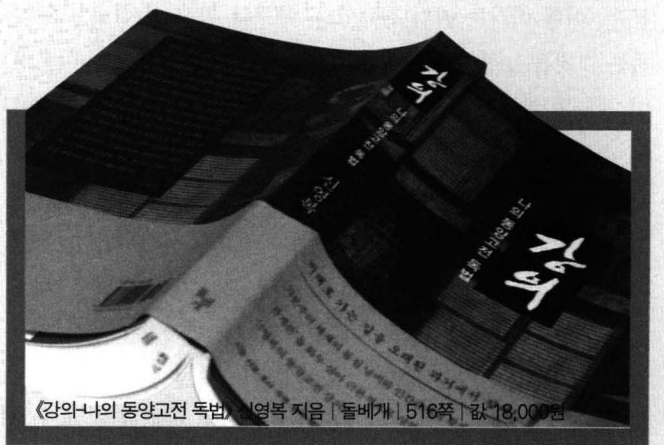
인문학적 기초만이 '노예' 아닌 '사람'을 키운다

소위 시(詩), 서(書), 화(畵)에 능한 선비, 스승이란 말로 소개되는 신 교수에게 서예와 그림 이야기를 꺼냈다. 요즘도 그림과 글을 자주 쓰느냐고 묻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군자불기(君子不器)라는 논어의 한 구절부터 인용했다. 군자는 그릇이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 즉 한 가지 용도만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이다. 그런 뜻으로 옛 선비에겐 시(詩), 서(書), 화(畵), 문(文), 사(史), 철(哲)이 모두 요구됐다. 그런데 작금의 교육은 ‘전문성’을 운운하며 한 가지만을 요구한다. 신 교수는 “이런 요구는 노를 잘 젓거나 대장간에서 쇠를 잘 달구는 등의 노예적 요구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자본의 논리, 비정한 논리죠. 다양한 취미와 관심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인문학적 기초가 담여 있어야죠. 물론 너무 산만하면 결실이 없을까 걱정스러운 점도 있지만요. 내년이면 정년입니다. 이제 더욱 자유롭게 무언가를 해보고 싶어요. 돌아보면 징역 20년까지 포함해서 사회적 과제, 사명감 같은 것들로 인해 자의만 타의만 활동했던 면도 있었어요. 이제 는 제가 좋아하는 것, 잘 하는 것을 하고 싶어집니다. 우선 제가 강의하러고 를 또한 번 정리하는 일도 그 중 하나일 겁니다.”

마침 신 교수를 만난 날은 수능시험이 있었다. ‘인생을 결정한다’는 수능시험을 치른 청소년들에게 신 교수는 “점수에 갇히지 말고 질주보다는 방향을 하라”고 충고했다. 젊을 때만 가질 수 있는 실천적 비판의식을 마음껏 가져보라는 의미다. 한편 우리 사회 여러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갈등 구조가 드러나는 것은 긍정적인 현상이지만, 해결 과정에 있어 배타적, 존재론적, 지배론적 방법들이 동원되는 건 큰 문제”라고 우려했다. 물론 다양성을 승인하는 동양적 공존의 질서만이 그 방법론이 돼야 한다는 말도 더했다. 이는 그가 적은 《강의》가 전하고 있는 ‘관계론’의 핵심이기도 하고, 더불어 살기, 공존하기를 제창했던 동양고전의 모태이자 선조들의 귀한 말씀이기도 하다. **홍준**

취재 김철연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



《강의의 동양고전 독법》 | 영록 지음 | 돌베개 | 516쪽 | 값 18,000원